

Session Sketch

The Asan Symposium:
“Celebrating Korea-US Relations: 140 Years and Beyond”
<http://asansymposium.com>

Session: Highlights from 140 Years of Bilater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S

Date/Time: June 3, 2022/10:10-11:40

Rapporteur:

Moderator:

James Kim, AMCHAM Korea

Speakers:

Ahn Ho-Young,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Lee Hong Koo,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Lee Joon-gyu,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Na Kyung Won, Presidential Special Envoy to the Davos Forum

John Linton,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Scott Snyde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oseph Yun, U.S. Institute of Peace

제 1 세션에서 발표자들은 1882 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이후 140 년 간의 한미관계 발전 과정 속에서 한미관계에서 기념할 만한 사건을 회고하고 양자관계의 지속 요인에 대해 논의했다.

안호영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6.25 전쟁과 냉전의 종식이 한미관계의 발전에 크게 작용했음을 언급하면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Order)가 세계 곳곳에서 도전받는 현재를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흥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은 지난 역사 속에서 미국의 건국 이념과 한미 간 가치 공유가 한미관계 발전의 성공 요인임을 강조했다. 이준규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주일한국대사의 경험에 기초해 미국이 한일관계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면서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에 선의의 도움을 주기를 기대했다. 인요한(John Linton) 연세대 교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과 경험이 한미동맹이 굳건한 이유임을 강조하는 한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수립 과정을 토대로 한미동맹의 발전과정을 설명했다.

** The views expressed herein are summaries and may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speakers or their affiliated institutions*

Session Sketch

The Asan Symposium:
“Celebrating Korea-US Relations: 140 Years and Beyond”
<http://asansymposium.com>

나경원 다보스포럼 대통령 특사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한국이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발전하게 된 것이 한미동맹 140주년의 정치적 의미임을 강조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 안보가 부각되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등장이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동맹으로 진화하는 한미동맹의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임을 지적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위원은 한미의 공통적 이해관계와 한국의 민주화가 한미동맹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한미관계는 과거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주고받는 관계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셉 윤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 고문은 한국의 민주화로 양국 지도자 간 신뢰의 관계가 형성된 것이 한미동맹의 발전을 견인한 하나의 요인임을 언급했다. 특히 그는 지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시에 과거 미국 대통령이 DMZ를 먼저 방문한 것과는 달리 삼성공장을 방문한 것에서 한미관계가 중요한 전환기에 있음을 느꼈다고 밝혔다.

세션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한미동맹이 다른 양자관계에 비해 특별한 이유는 동맹이 역사적인 전환기마다 진화를 거듭해 왔으며, 한국이 한반도 문제나 국제적 문제에 있어서 문제 해결을 하려는 진정성 있는 자세가 세계 다른 국가들의 모범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The views expressed herein are summaries and may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speakers or their affiliated institutions*